

3%대 고물가...사과·배 역대 최대·석유류까지 ↑

사과 88%·배 88% ↑...신선과실 2개월째 40%대 석유류 1.2% 올라 기여도 커...가공식품은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보다 88% 가량 오르며 조사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14개월 만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기록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

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꺾(68.4%), 토마토(36.1%), 과(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

도는 0.05%p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은 과실·채소 상승률이 높은 데서 영향이 있었고 축산물도 올랐다"며 "석유류가 기여도가 가장 컸고 과실에서 올랐지만 채소에서는 빼졌기 때문에 지난달과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승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

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뉴스스

/광양·조순익 기자

광주은행, 다자녀행복카드 감사 이벤트...캐시백·경품

광주은행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다자녀행복카드' 이용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캐시백과 경품을 제공한다.

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캐시백 이벤트는 다자녀행복카드를 누적 1만 원 초과 이용 시 1만원(해의 겸용) 또는 9000원(국내 전용) 캐시백을 지급한다.

'경품 이벤트'는 올해 둘째 이상 출생신고를 하고 다자녀행복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GS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광주은행이 광주광역시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시했다.

다자녀 가정의 주요 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혜택을 탑재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출시 약 80일 만에 발급 카드 수가 5000개를 돌파했다.

발급 대상은 신청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고 태아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이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념촬영하는 고광호 관세청장과 국외 59개국 FTA 담당자. 고광호(앞줄 가운데) 관세청장과 국외 59개국 FTA 담당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 'FTA 2.0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광주 착한가격업소 226곳...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지원

1억9000만원 투입...광주상생카드 5% 캐시백 추가 등

광주시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

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다. 광주지역에는 외식업 150개, 개인서비스업 76개소 등 총 226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부투 등의 구입을 위해 1

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영민 기자

중소·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 속도

6개 협약기관 간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자리에서는 지방청 등 6개 기관 과장급 실무자들은 기관별 주요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사업(광주시)', '지역안전보건포럼(고흥청)' 추진, '중대재해예방 바꾸려 제공(중진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종래 청장은 "앞으로 회의록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해 협약기관 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권영민 기자

전남농기원, 농업분야 특허권 8건 기술이전

연구개발 성과특허기술 이용 제품 출시...수출 기대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고급청화 동유자영농조합법인 등 6개 업체와 8개 농업 분야 도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하는 지식재산권은 ▲유자의 갈변방지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갈변방지법 ▲항산화능이 증진된 분쇄형 청대전의 제조법 ▲사료첨가제와 이를 포함한 사료조성물 ▲꿀벌 장내 발효균을 이용한 화분떡 제조법과 화분떡 ▲신규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균주 JARES.N3 균주와 이의 용도 ▲신규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균주 JARES.N2 균주와 이의 용도 등 특허 6건이다.

또 흑하랑 상표(30류) 1건과 포장용 상자(강황 & 유자젤리) 디자인 1건도 이전 대상이다.

전남농기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된 특허는 지역특산 유자, 차(茶), 강황, 흑하랑 상추를 이용한 식품가공과 꿀벌 장내에서 분리한 미생물과 유자 자른 사료

/김 호 기자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오는 8일부터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공고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332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8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임대료가 시세의 30~80%로 저렴한 편이다.

올해 1차로 공급하는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 등 총 3332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호(42%), 그 외 지역은 1934호(58%)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방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아, 대형 세단 2024년형 'K9' 출시...상품 경쟁력 강화

내·외장 디자인 고급화...신규 편의사양 적용



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을 2일 출시했다.

The 2024 K9은 내·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경쟁

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에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했다. 수평형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의 얇아진 크롬 베젤

과 어우러져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외장 색상은 페블 그레이가 추가됐다. 신규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다.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고 동승석 메모리 시트를 마스터즈 트림부터 기본화해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편의성을 확보했다.

The 2024 K9 3.8 가솔린 모델 판매 가격은 플래그십 5933만원부터 베스트 셀렉션 II 8210만원까지 다양하다.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플래그십 6588만원에서 베스트 셀렉션 II 8685만원으로 책정됐다.

/권영민 기자

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납부"

광주시는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

는 외국법인이다. 대상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

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제조·건설·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권영민 기자